

북한 사회 연구동향과 과제

조은희(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1. 서론

최근 북한 연구는 1990년대 ‘북한학’이라는 독자적 영역이 성립되면서 연구의 양과 질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연구에 있어서도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서행¹⁾이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정책적 차원 또는 정보제공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북한 연구에 대해 학문으로서 한 단계 발전이 요구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 연구는 자료습득의 어려움과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에 북한학으로서의 북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전문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북한 연구는 공산주의이데올로기 비판, 한반도 통일방안, 분단국 통일방안, 주체사상연구, 북한 외교, 북일관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연구, 북한법, 북한 사회 분야

1) 이서행, “북한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2000), 8쪽.

등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후 1990년대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고 국내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쇠퇴함에 따라 북한 연구는 이제 학문으로서 제도화되어 왔다. 이는 북한학회의 창립과 북한학과의 개설로 이어졌다. 또한 1991년 4월 ‘민족통일연구원’의 개원 이후 북한 연구가 정치학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학문 전 분야로 연구주제가 다양화되어 예술, 관광, 주택, 보건, 의료,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북한 연구가 접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 연구는 특성상 대부분이 북한정치연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북한을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연구는 정치학 분야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다. 또한 시기별로 북한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검토하면서 북한 사회 연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북한 사회 연구현황을 살펴보면서 북한 사회연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사회 연구동향

1) 북한 연구 동향

1990년대 북한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행본과 석·박사학위논문

2)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제50호(2006), 35쪽.

의 증가이다. 단행본은 1980년대에 비해 약 3배, 석사학위논문은 약 2.5배, 박사학위논문은 약 6배의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의 양적증가는 북한 연구가 학문으로서 이전에 비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

1990년대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어떻게 하여 성립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시작했으며, 주체사상은 북한체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수령의 차원만이 아닌 북한 인민들의 수준에서 북한 사회를 보려는 접근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정치학 중심의 연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역사·사회·경제·법학·문학 등 비정치학 분야의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김영수⁴⁾의 연구에 의하면 김성보의 “북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⁵⁾ 서재진의 『또 하나의 북한사회』,⁶⁾ 김재용의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⁷⁾ 등은 역사·사회·문학 분야의 시각에서 북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한다.

정영철은⁸⁾ 다음과 같이 북한 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분단이후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 북한 연구가 초기에는 주로 월남 내지 귀순인사들의 정보분석, 정책해설 수준에 머물다가 국토통일원이 설립되면서 사회과학적 분석틀 적용 및 이론화가 시도 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보와 반공이라는 의도가 개입되어

3) 위의 글, 36쪽.

4) 위의 글.

5) 김성보, “북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6)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7)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4).

8) 정영철,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가을 학술회의 발표문(2007), 4쪽.

몇몇 선구적인 연구성과물을 제외하고는 연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⁹⁾ 이 시기는 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일련의 연구물 시리즈와 전후 최초로 발간된 을유문화사의 ‘북한인식 시리즈’가 객관적인 학문적 연구로 새롭게 시도되었다.

제2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로 ‘북한바로알기 운동’ 및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대되면서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기로 기록된다. 이 시기는 북한 연구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점차 과학의 영역으로 이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선 관변연구, 이데올로기 중심적인 연구의 틀을 깨고 김일성의 항일역사, 북한의 권력구조, 주체사상 등의 분야에서 실증을 통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기 가장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는 그동안 북한 연구의 방법론이 부재한 가운데서 연구방법론이 제기되고 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제3기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라고 할 수 있다. 2세대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의 방대한 연구성과물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정부정책에도 참여하는 등 북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 및 대학원 등에서 북한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북한 연구가 전개되어 나간 시기이다. 특히 북한의 현대사 연구에서 방대한 저작들이 출간되어 있는 그 대로의 ‘북한’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정세와 남북

9) 김영수(2006)는 당시의 연구내용 중 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권 연구에 활용한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활용하고 이론적 틀을 수립하려는 선행연구의 축적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연구자들이 이전 연구 결과들을 관변 연구로 치부하고 거의 참고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통째로 사장시키는 연구의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책중심의 보고서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¹⁰⁾

북한 연구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했으며, 학술적인 관심도도 그만큼 증대했다. 연구의 주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정치와 경제, 군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점차로 벗어나 외교는 물론 문화, 여성, 가족, 종교, 협상 등의 사회적인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박사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존의 정치·경제 분야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문화, 외교협상 등의 주제가 2000년대 이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 및 인식의 변화를 다룬 주제들과 탈북자들을 다룬 주제가 많아졌다.¹¹⁾

이처럼 북한 연구는 50년 동안을 이어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영역에 편중되기도 했지만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 및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활용한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등 이전의 연구경향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기초연구의 위축과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후반 생기기 시작한 북한학과는 2000년대 중·후반 관동대와 조선대가 학과를 폐지·통합했고, 명지대 북한학과는 200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는 동국대, 고려대, 선문대에만 북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국대에서도 학과의 축소가 거론되는 등 학부에서의 북한학과는 축소·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11) 이러한 탈북자 연구와 함께 북한 연구에 있어 최근 탈북자 면접을 활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그들의 증언이 갖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고 원전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정보, 즉 미시적인 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북한 사회 연구동향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 연구 현황에 대해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사회 연구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북한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학위논문 정보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명을 ‘북한’이라는 단어로 검색했다.¹³⁾

먼저 북한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박사학위논문은 1969년 이문영의 “북한행정권력의 변질요인에 관한 연구”¹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1편이 발간되었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1980년대 36편에서 1990년대 118편으로, 그리고 2000년대 200편 가까운 논문이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1990년대 들어 북한 연구가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보다 2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26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된 이후 2009년 17편 2010년에는 7편+@로 2010년 하반기 출간될

12) 북한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2010년 현재 총 356편으로 검색되었다. 2010년의 논문 편수는 3월 현재까지의 숫자로 2010년 말까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로 표시해 놓았다.

13) <http://www.riss.kr/index.do>.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학위논문 정보검색 시스템.

14) 북한 연구에 있어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인 이문영의 논문은 김영수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에서는 1970년도 학위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박사학위논문의 경향은 김영수의 논문에서 정리되어 있는 연구 동향과는 약간의 수치 차이가 보인다. 이는 자료검색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북한 사회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북한 관련 박사학위논문 현황(총 351편)⁸⁾

연도	논문수		연도	논문수		연도	논문수	
1969	1	1	1991	15	118	2001	14	189
1974	2	7	1992	16		2002	20	
1975	2		1993	9		2003	23	
1976	2		1994	9		2004	21	
1977	1		1995	10		2005	13	
1981	1		1996	6		2006	26	
1983	1	1997	12	2007		22		
1985	7	1998	15	2008		26		
1986	2	1999	13	2009		17		
1987	7	2000	13	2010		7+@		
1988	2							
1989	6							
1990	10							

논문들을 예상해 보더라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 연구라고 할 수 없는 탈북자 연구 22편을 제외하면 북한에 대한 연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2001~2010년 탈북자 관련 박사학위 논문 목록>, 이 책 59쪽 참조).

<표 1>을 보면 1990년대 남북관계 활성화가 1990년대 북한 연구의 양적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 즉, 1998년부터 박사학위 논문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20편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의 논문편수는 17편으로 줄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탈북자에 관한 연구 및 북한인권 개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 북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 발표된 석사학위논문은 총 3,080여 편에 이르고 있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1960년대 9편, 1970년대 110편, 1980년대 549편, 1990년대 1,068편, 2000년대에는 1,350편으로 그 수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송승섭¹⁵⁾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것과 같이 석사학위논문은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 기타 특수·전문대학원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일반대학원이 35%,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이 60%로 그 비중에 있어 특수대학원의 논문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또한 김영수¹⁶⁾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를 보면 중복연구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에서 1990년대 이후 폭발적인 증가는 북한학이 학문으로서의 기반을 쌓아가는 것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중복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많은 대학에서 기초연구에 충실하면서 질적으로 다원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모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 줌으로써 그간의 특수대학원 중심의 연구도 발전적으로 지양하여 내실 있는 연구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북한 사회연구 관련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⁷⁾

15) 송승섭, “북한관련 연구 동향의 계량적 분석—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북한』, 1998년 1월호(1998), 104~105쪽.

16)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43쪽

17) 송승섭(1995)은 북한 연구를 주제별·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① 당·정치 ② 법률·행정 ③ 외교 ④ 경제 ⑤ 사회·문화 ⑥ 교육 ⑦ 군사 ⑧ 대남전략 ⑨ 통일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연구 분야를 가족/여성/대중매체/보건의료·복지/노동/종교·선교/사회통제/사회화/청소년·가치관/사회운동/도시/언어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송승섭(1995)은 구체적으로 사회·문화 분야를 가족정책/가족제도/여성정책·역

<표 2> 북한 사회연구 관련 현황(총 42편)

년도	편수		년도	편수		
1979	1	1	2001	1	26	
1985	1	4	2002	2		
1988	1		2003	4		
1989	1		2004	3		
1990	1		2005	4		
1991	1	11	2006	5		
1992	2		2007	3		
1993	1		2008	2		
1994	2		2009	2		
1995	0		2010	0		
1996	1		총		42	
1997	1					
1998	2					
1999	1					
2000	0					

박사학위 중에서 북한 사회연구는 총 42편으로 북한 박사학위논문 전체 351편 중 11%에 해당한다. 1980년대에는 4편, 1990년대에는 11편,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6편으로 그 수가 2배로 증가했다. 또

할/방송정책/보건의료정책/기본권/대중매체: 신문·언론·언론이론·정책·여론 조작/동원체제/무용예술/문예정책·문학운동/문화정책/북한선교전망·전략·기독교실태/종교정책/사상교양정책/사회정책/사회통제/사회화과정/강제노동·통제정책/관광자원·실태/주민통제/청소년성격형성: 가치관/토지개혁/천리마운동/도시계획/도시정책/도시규모/가정생활실태/가족윤리/법적지위/대미감정/국어정책/언어/언어정책/역사왜곡/과학기술정책/문화변형/문화운동/민속성격/속담/전통(민속)/사회갈등조정기능/사회복지제도/노동정책/농업정책/농민조합운동/잡지(근로자)/전광판/정보자료교류/협동농업비교/협동농장/주민불만요인/직장적응도/기독교와 공산정권관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송승섭, “분단 이후 북한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북한』, 1995년 5월호(1995).

한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는 여성, 가족, 환경, 일상, 인구, 동원체제 등이 연구되었고, 2000년대에는 인권, 종교, 복지, 의료, 관료제, 조직과 관련된 주제가 연구되었다.

하지만 <표 2>에서도 보듯이 각 연구주제들이 연구 분야라고 할 것도 없이,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고 있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한두 편의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다.¹⁸⁾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2000년대 북한 사회연구 경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북한 종교와 관련된 논문으로 2001~2010년 사이 6편의 박사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3편의 논문은 북한 선교와 관련된 논문으로 북한 종교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990년을 기점으로 북한 연구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 정치연구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 연구경향과 비교해 교육, 종교, 의료, 탈북자 연구 등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사회연구 분야에서는 몇 주제에 쏠림 현상이 있지만 새세대, 사회운동, 인권, 일상, 상징, 불평등, 계급, 복지제도 연구 등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사회연구 논문 중 연구물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정치사회화 관련 논문은 총 4편이 발표되었다. ‘정치사회화’로 검색되는 박사학위논문은 1980~1990년

18) 이우영(2005)은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에서 북한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 논의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 관련 저서들이 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체제 특히 북한 사회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사회연구 저서들에 대한 분석은 이우영,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2005)의 글 참조.

<북한 사회연구 목록>

□ 대중동원

이광재, “북한신문의 대중동원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79).

□ 정치사회화

김창희,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8).

박문갑, “북한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9).

김경웅, “북한의 정치사회화: ‘주체문화’ 정착을 위한 ‘사상교양’과 대중운동,”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박복현, “북한 정치사회화의 과정과 한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 매체: 신문

안춘옥, “북한신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9개 사건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 성/여성

김효진, “사회주의국가의 ‘남여평등’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소련,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5).

임순희, “북한 여성의 정치문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황무임, “북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박영자,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1980년대): 공장과 가정의 정치사회와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이미경, “북한 영화에 나타난 ‘일하는 여성’ 형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 가족

박현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 환경

진상문,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 동원체제

이상휘, “북한의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 이념, 원칙, 수단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

권오윤, “북한 동원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 조직/집단주의/통제

이승목, “북한 집단주의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일상

김응길, “북한 관혼상제와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

이애란, “1990년 전·후 북한주민의 식생활양상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 통제정책

정일동, “북한의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 인구

정상희, “북한의 인구전망과 남북한 경제교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1998).

□ 인권

강명옥,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개선전략과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경규상, “북한인권문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종교/선교

박성범, “북한의 기독교 실태와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연구,” 필라선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유관지, “해방 이후 북한교회사에서 강랑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변진홍,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인간중심철학의 대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최명국, “북한 교회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성격 연구: 지배체제 및 종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윤현기, “북한주민의 종교의식 변화를 위한 선교전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4).

허성업, “북한선교 역사와 현황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선교정책의 원리와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 관료제

정일용, “북한의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이상근, “북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 불평등/계급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 상징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 사회운동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 변질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 보건/의료/복지

이철수, “북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이념·제도·현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이용자, “북한의 보육제도와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최영인, “‘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김기환, “북한에서의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 현황,” 가천의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 세대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 언어/문법

김남돈, “북한 ‘토’ 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대에 3편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1980~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도 정치사회화와 관련된 유사 논문들이 대거 발표

되었다. 또한 정치사회화의 경우, 정치사회화로 분류되기보다는 교육(정치교육)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상당한 연구축적과 함께 연구의 중복현상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¹⁹⁾

성/여성 분야에서는 2007년 “북한 영화에 나타난 ‘일하는 여성’ 형상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 5편의 박사학위논문이 검색되었다. 그중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가 2편, “북한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 공장과 가정의 정치사회화와 여성노동을 중심으로”(2003)는 여성의 정치문화와 여성노동을 통해 본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 눈에 띈다. 가족 분야에서는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1999)가 박사학위로는 유일하다.

인권 분야는 2006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개선전략과 비교분석”(2006), “북한인권문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2006)로 두 편 모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역할과 관련된 논문으로 200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전후로 관심을 보인 분야라 할 수 있겠다.²⁰⁾ 그 외 북한인권 관련 석사학위논문은 총 46편으로 대부분이 2000년 중반 이후 발표되었다. 내용으로는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과 탈북자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그 이후 현재까지 북한 인권분야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북한연구 분야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종교 분야는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방 이후 북한교회사에

19) 검색해 보면,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관련된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8편, 북한 정치교육 관련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77편으로 많은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20) 우리 정부는 2006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으며, 2008년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 강량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200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2003), “북한 교회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성격 연구”(2004)가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 종교정책과 관련된 연구이다. 그 외 3편은 모두 북한의 종교에 대한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선교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2005년 이후 발표되었다.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화되면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부패현상에 대한 연구(“북한의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2007), “북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2008))와 사회불평등 현상과 계급의 균열 현상을 분석하는 논문(“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2006),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2009))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한 북한 사회의 혼란, 문제점들을 정리·분석해내고 있다.

조직/집단주의/통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북한 집단주의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2005)와 “북한의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2006)가 발표되었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연구가 4편이 연구되었다. 그중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북한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이념·제도·현실 분석을 중심으로”)와 북한의 보육제도(“북한의 보육제도와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와 관련된 운동(“‘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등 모두 복지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외에도 동원체제, 통제정책, 일상, 사회운동, 세대 등의 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를 다양하게 조망해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북한 사회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분석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는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와

<북한 문학/예술 분야 연구목록>

□ 문학/예술

장노현, “북한의 초기 문학운동론: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

김현중, “해방기 북한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 1945~1950년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

이주미, “북한의 농민소설 연구: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

이효인, “북한의 수령 형상 창조 영화 연구: 연작<조선의 별>과 연작 <민족의 태양>의 신화 형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김경숙,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홍혜미, “북한의 전후 소설 연구,” 청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이상숙, “북한문학의 ‘민족적 특성론’ 연구: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이현주, “북한음악의 변용과 철학사상적 근거,”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이명자, “김정일 통치시기 가족 멜로드라마 연구: 북한 근대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이지순, “북한 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조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안상문, “이기영 해방 이후 소설 연구: 북한 문예정책 및 문예이론의 원용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Dygulska Kinga, “북한문학에 나타난 김정일 우상화 현상 연구: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6).

토시히로, “초기 북한문단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 김사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박순선, “북한 서정시 연구: 『해방 후 서정시선집』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박미례, “북한체제 전통미술의 변용과 보존: 단청과 불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이승이, “1950년대 북한문학의 민족적 특성·주체성·현대성 연구: 조선문학 평론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현지조사의 문제점으로 인한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을 현지조사 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문헌 및 북한 공식 자료들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분석이 상당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문학/예술 연구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북한의 특정 연구 분야로서 연구 업적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료의 제약을 북한 사회연구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자료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북한 문학/예술 연구의 축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를 차지하는 북한 문학 연구는 물론, 최근에는 북한 영화, 음악, 드라마, 미술 등의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북한 문학연구에 있어서도 특히 해방시기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눈에 띈다. 또한 북한의 문학과 예술 연구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소설과 영화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사태를 분석하는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사회연구에서 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자료로 활용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극복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2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자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탈북자자체에 대한 연구와 또 한 가지는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탈북자들의 증언 및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를 활용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북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새로운 자료 활용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북자들의 증언·경험이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를 검증하는 형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가족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문헌을 통해 제도를 분석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를 확인, 검증하면서 연구성과를 더욱 풍부히 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식생활을 분석한 이애란의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경제난 이후 나타난 식생활의 변화를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에서 출간되는 자료를 분석한 후자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09)과 같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001~2010년 탈북자 관련 박사학위논문 목록이다.

1999년 2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22편 모두가 2000년대 발표된 논문으로 최근의 탈북자에 대한 연구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논문들이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2006),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

□ 탈북자 연구

-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
-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 조영아,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2004).
- 임정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 김재영,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 박하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 김형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 정옥환,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증진을 위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 박윤숙,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류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6).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김윤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김미자,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

김병창, “북한 이탈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연 살해 세포 활성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이재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박주현, “북한이탈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편송경,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는 요인 연구”(2009)와 같은 탈북자 적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논문들이 눈에 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연구는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문학/예술연구와 탈북자 연구와 비교해 본다면 북한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경제난 이후 변화된 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다양화에는 북한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북한 문학/예술 작품들을 활용과 탈북자들의 증언 자료들의 활용과 무관하지 않다.

3. 북한 사회연구의 한계 및 과제

북한 사회연구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북한학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남북관계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었던 사업과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정책보고서 수준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 사회연구의 기초연구가 등한 시되었다. 즉,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사회연구 분야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연구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의 북한 사회연구 경향에서 인권, 종교, 그리고 경제난 이후 사회변화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가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때문에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기초연구는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것도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북한 연구가 탈북자 연구 및 인권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연구의 필요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료의 문제이다. 북한 기초연구가 등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정책적 보고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 풍토가 북한 원전 자료를 통한 기초연구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북한학과 학생들조차 북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원전 자료보다는 2차, 3차 자료에 의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 원전과 함께 최근 탈북자의 면접 자료 등의 활용은 연구 자료의 다양한 활용에 있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탈북자 면접 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연구에서 탈북자 면접 자료는 기존 북한 연구들이 현지조사의

제한으로 인해 문헌중심의 연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살던 경험을 듣고,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때문에 최근의 많은 북한 연구들에서 연구 내용의 확인 및 사례를 풍부히 하는 데 탈북자들의 면접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는 연구들에서는 탈북자들의 면접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임순희²¹⁾가 지적한 것처럼 탈북자의 증언은 특히 공개적인 발언이거나 간행물에 실리는 경우 해당기관의 검열을 의식하여 행한, 편파적이거나 사실의 가감이 가해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또 탈북자의 증언은 시기적으로 한정되거나 지리적으로도 자신의 주변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다양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고 비교 또는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을 걸고 탈북한 사람의 심리로는 얼마든지 정보를 과장 또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 연구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거의 의존한 ‘000라고 하더라’는 연구도 상당부분 있으며 이러한 연구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인용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그곳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경험 자료가 새로운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면 자료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사회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부족한 현상이다. 북한 자료에 대한 제약과 현지조사의 어려움이 북한 사회연구의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때문에 북한 연구는 다른 지역연구와 비교하여 정보의 중요

21) 임순희의 연구에서는 탈북자가 아닌 귀순자로 표현되고 있다. 임순희,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연구의 한계,” 『북한』, 1994년 5월호(1994), 161~162쪽.

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초기 북한 연구에서는 북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가 북한 연구의 전부를 차지하기도 했다.²²⁾

지난 60년간의 북한 연구에서 북한 사회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료와 현지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은 1990년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으며 또한 북한 자료의 공개와 활용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 발로 뛰게 되면 북한 자료를 직접보고 연구하는 데 충분하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 시기 디지털화로 인해 연구물들 및 자료들을 앉은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되면서 연구자들이 오히려 이전시기 북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보다 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원전자료에 대한 분석을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에 치중되어 있는 2, 3차 자료들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다. 그래서 연구 분야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구의 절반 이상이 정치와 경제 같은 거시적인 연구에 치중되고 상대적으로 발로 뛰어야 구할 수 있는 북한 사회 관련 연구 자료에 대한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민들의 삶과 문화 생활 등 미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2) 이러한 풍토는 현재까지도 남아있어 북한 자료에 대한 공유, 그리고 탈북자의 증언자료들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지 않아 자료와 연구의 축적이 쉽지 않아 북한 연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계속되는 갈등상황과 국제정세는 북한 사회의 미래를 예측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미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보다 정책에 바로 반영하고 거시적이고 빠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사회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는 북한 정치와 경제와 같은 거시적인 연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연구주제의 발굴, 그에 필요한 북한 원전 자료를 포함한 자료의 축적, 이를 기반에 둔 기초연구의 축적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탈북자 증언 외부자료와 같은 새로운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것의 활용 및 북한 문학/예술자료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2월 27일 / ■ 채택: 3월 26일

참고문헌

-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제50호(2006).
- 송승섭, “분단 이후 북한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한다-석·박사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북한』, 1995년 5월호(1995).
- _____, “북한 관련 연구 동향의 계량적 분석-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북한』, 1998년 1월호(1998).
- 이서행, “북한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2000).
- 이우영,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2005).
- 임순희,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연구의 한계,” 『북한』, 1994년 5월호(1994).
- 정영철,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가을 학술회의 발표문(2007).

<http://www.riss.kr/index.do>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학위논문 정보검색 시스템.

North Korean Social Research Trend and Problem

Cho, Eun Hee

(Research Professor,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Ewha Women's University)

Recently the North Korea research was established 'North Korean studies' the indigenous territory and quantity and quality of studies was developed. 2000's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activated specially and North Korea social research quantitatively is increasing.

Interview data of the defector from North Korea and North Korea literary work etc. which is various was applied. So the North Korea research grew qualitatively and theme became variously. As ever the North Korea research is the most political-economic research center.

North Korea social research 10% of whole North Korea research. Also 'accumulations' of North Korea social research do not become are the situation. North Korea research the research which is microscopic relates with the North Korea society and the research which is macro-

scopic does to become accomplished together in balance.

Keywords: North Korean Studies, Sociology, Defector from North
Korea, Microscopic research, Macroscopic research